

장애인과 일터

Vol.336

2023 APRIL

KEAD Monthly Magazine

콩닥콩닥, 열정의 시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APRIL Vol.336

콩닥콩닥, 열정의 시간

따사로운 기운이 온 세상을 감싸는 봄날입니다.
싹을 틔운 나무 새싹과 어린 꽃들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에너지를 힘껏,
마음껏 내뿜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잠시 상상해보면 콩닥콩닥,
그 열정의 순간들에 얼마나 신이 날까요?
여러분도 그런 특별한 봄날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콩닥콩닥, 열정의 시간
- 04 **생각 더하기**
로봇 다리 소년의 뜨거운 성장기
- 06 **공감 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바로 알기
- 10 **일터 트렌드**
드라마 콘텐츠 발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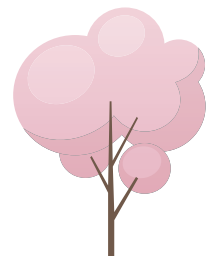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나, 동료지원가! 당신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 20 **우리는 KEAD**
“3인 3향, 저희가 만든 향기 맡아보실래요?”
- 24 **KEAD 포커스**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취지에 대하여
- 26 **세계는 지금**
영국, 장애인직업훈련 현장을 가다



공감, 함께하다

- 30 **트렌드 보고서**
챗GPT 열풍 속, 인공지능 윤리문제
- 32 **배리어프리 여행**
도심에서 느끼는 색다른 자연, 서울식물원
- 34 **고민톡 상담톡**
“단축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36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7 **KEAD 톤**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신장장애인 편
- 39 **KEAD 뉴스**
- 40 **KEAD SNS**



콩닥콩닥, 열정의 시간

열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천체물리학자

영국의 저명한 천재 물리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전 석좌교수인 스티븐 호킹 박사. 그는 1942년 옥스퍼드셔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수학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17세에 영국 최고의 명문대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 들어가 자연과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수재이기도 했지요. 젊은 과학자로서 큰 포부를 지닌 스물한 살의 그에게, 어느 날 날벼락과도 같은 병마가 찾아옵니다.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루게릭이라는 병이었어요.

몸이 점점 굳어가자 호킹 박사는 한동안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을 추슬러 우주과학 연구에 매진하게 되지요. 휠체어에 앉아 온 정신을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데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윽고, ‘블랙홀 이론’을 물리학계에 내놓으면서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큰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악화되어 40대 초에는 폐렴 후유증으로 목소리를 잃었고, 루게릭병은 깊어져 겨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야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분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고작

6~10개였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는 1988년 우주의 탄생 비밀과 블랙홀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결실을 담은 ‘시간의 역사’라는 과학서적을 출간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2018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당신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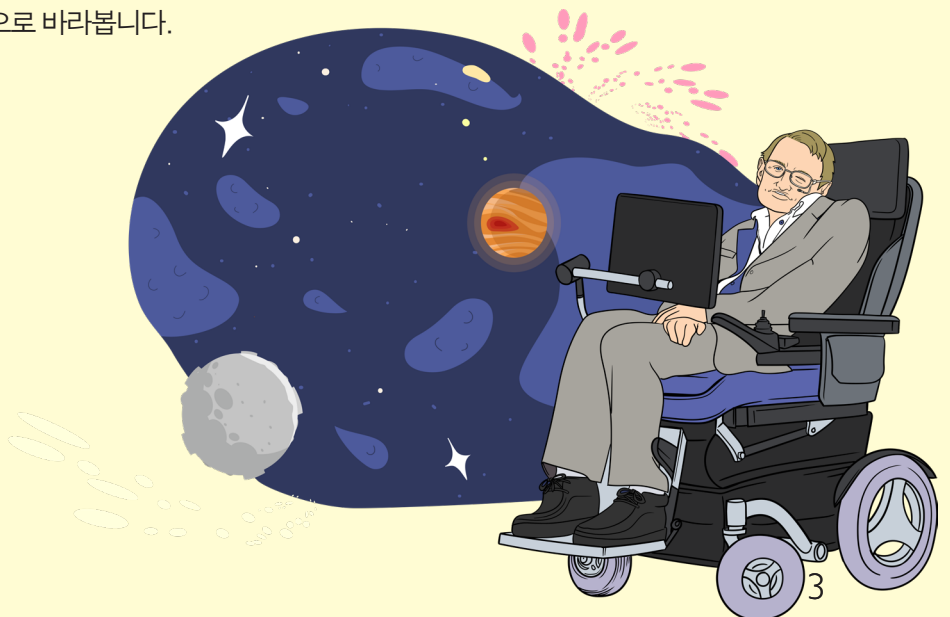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품는 것, 원하는 것에 집중해 열정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호킹 박사처럼 위대한 업적은 아니더라도 과거보다 나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높은 장애물 앞에 망연자실 서 계신 독자분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으로 가득한 봄날이시기를,

콩닥콩닥 열정을 품는 시간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로봇 다리 소년의 뜨거운 성장기

“거울은 미래를 비추지 않는다.”

글 김세진(지체장애)



불운의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던 나

세상 ‘세(世)’, 참 ‘진(眞)’. 내 이름은 2살 무렵, 고아였던 내게 처음 가족이 생겼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나를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렀다. 물론 좋은 의미가 아니었으리라. 두 다리 대신 로봇 다리를 가진 장애아동, 입양아동, 이혼 가정, 가난 등... 나는 남들 눈에 흔치 않은 배경을 가진, ‘1+1 패키지’의 유행을 뛰어넘은 ‘1+α 패키지’였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였을까. 3월(입학 시즌), 4월(장애인의 날), 5월(가정의 달)이 되면 우리 가족은 수많은 기자로부터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받는다. 가족들은 이 전화를 피하고자 휴대전화를 꺼두고 살다시피 한다. 그러나 내가 27살이 된 이번 3월에 기고문 요청에 응하게 된 것은 개학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

“거울은 미래를 비추지 않는다. 지금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사실 이 말을 전하는 나로서는 모순적일 수도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사회에서 불운의 ‘종합선물세트’였기 때문이다. 유치원 때는 학부모님들의 강력한 반대로 유치원을 열세 군데나 옮겨 다녔고, 초등학교도 3번이나 전학해야 했다. 중학교 때는 불합리한 여러 이유로 자퇴를 선택해야 했을 정도였다. 학창시절의 기억이라곤 6학년 형들이 화장실에서 교구용 망치로 나의 의족을 깎은 것, 체육 시간에 축구 드리블을 못 한다는 이유로 체육 점수가 0점 처리된 것, 9살에 시작하여 수영으로 꽤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였음에도 장애인은 특기생이 될 수 없다는 것, 결석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졸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등. 세상은 내게 하고 싶은 것들보다 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로만 가득 찬 것 같았다. 그 시절 거울에 비친 나는 그저 꿈 많은 10대 장애인이었으나, 내가 꾸는 모든 꿈은 허황한 망상일 뿐이라고 여겨지던 날들의 연속이었다. 더는 비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 극단적 상상을 하기도 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더 깊은 어둠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어내렸던 시절이었다.

내 안의 열정을 깨우자 일어난 기적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문득, ‘내게 주어진 환경에 눈을 감고 목표에 눈을 떠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가보자는 마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선택했다. 밤낮없이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중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고등학교 과정을 3개월 만에 졸업하게 되었다. 멀리 돌아서라도 목표에만 가닿자 했으니 어느새 지름길로 가고 있었다. 만 15살의 나이에 성균관대학교에 최연소로 입학했다. 2016년에는 ‘장애인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비장애인과 경쟁해보자!’라는 새로운 도전을 가지게 됐다. 지옥 같은 훈련들을 통과해 브라질 리우패럴림픽이 아닌 올림픽 10km 수영 부문에서 한국 국가대표로 최종예선전까지 출전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경험은 내 안의 열정을 깨우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나는 브라질 리우올림픽을 마지막으로 11년 동안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영선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공부하고 싶어졌다.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영어를 못하던 시기에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하는 학생들 속에서 살아남기란 수영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누구는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했는데 나는 죽기 살기로 해야만 했다. 매일 같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고된 수영 훈련을 해왔어도 코피 한번 안 났던 나였으나 입학 4개월 만에 쌍코피가 터졌으니... 모든 수험생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던 순간이었다. 더욱이 나는 어렵게 받은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이 울기 직전까지 공부했고, 그토록 원하던 뉴욕주립대학교 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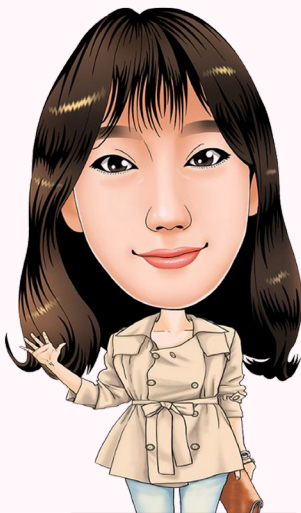
이처럼 꿈 많았던 장애아동은 많은 꿈을 이룬 성인이 되었고, 지금의 난 사회인이 되어 또 다른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시간을 되돌려 그날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왔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거울에 비친 자신의 현재에 실망하지 않기를, 앞으로 거울에 비칠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원하는 일들에 뜨거운 열정을 다해보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무엇을 하든 열정으로!

모든 사람들은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열정이든 배우고 싶은 열정이든 한 번쯤 끓어오르는 마음을 경험했을 것이다. 여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의 열정도 다르지 않다. 일, 운동, 배움을 향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백지현 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직예산부

“

꾸준한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해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직예산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정집행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집행’을 관리하고 있지요. 또한,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에 애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열정’이라는 단어를 상상해보니 마라톤 참가를 위해 한 달간 준비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친구의 권유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던 마라톤에 막연한 호기심으로 도전했어요. 참가비 전액이 ‘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된다고 해서 장애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10km나 되는 거리를 완주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했죠. 뻔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친구는 마라톤 참가 전,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집 근처 공원에서 거리와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이 좋아지는 게 체감돼 욕심이 생겼고, 그 결과 마라톤에서 완주할 수 있었어요. 제 스스로 한정지어 놓았던 한계를 극복했을 때의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으로 하다 보면 불가능한 건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올해에는 ‘한 달에 책 3권 이상 읽기’라는 목표가 있어요. 유명 강사분이 “3개월에 약 200권의 책을 읽고 사고력 전환이 일어났다”는 영상을 보고 자극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김의호 부장
일자리안정국 근로지원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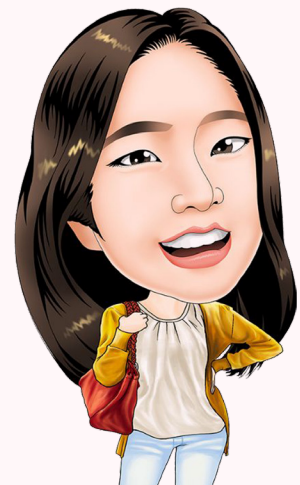
**열정을 경험하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죠**

2000년 4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해 현재 근로지원부장으로 근로지원인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근로지원인을 배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지요.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매우 유익한 사업임에도 과도기적인 문제들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힘들 때가 있는데 둘러보니 저에게도 소중한 근로지원인들이 있더군요. 바로 가족입니다. 이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묵묵히 버티고 있는 동료들을 보며 힘을 냅니다.

연말에 우리 부서 직원 두 명이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되었는데 그간의 고생을 격려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가 칭찬받을만하지만 일부라도 외부의 인정을 받으니 뿌듯했지요. 이를 통해 진심으로 일을 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나도 내 속의 열정을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열정적이면 좋겠지만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열정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지역본부 취업지원부에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구직자분들에게 취업 성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작으로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서비스까지 단계별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신 분이 사업체에 만족하고 오랜 기간 근속하시면서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오거나 사무실에 들러 일을 잘하고 있다며 말씀하실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수면, 휴식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한 저의 열정을 알아봐 주신 것만 같습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 일을 열정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 전 헬스장에서 ‘새벽 운동’을 한 것과 토요일 오전 ‘풋살 수업’을 들은 일입니다. 평소였다면 잠을 자는 시간이었는데 이를 잘 활용해 열심히 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고 나면 저 자신을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한번 이런 경험하고 나니 그 경험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늘 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프랑스어에 관심이 생겼어요. 파리에서 프랑스어로 에스프레소 한 잔을 주문해 공원에서 마시는 상상을 하기도 했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고 싶습니다.



김지은 주임
대구지역본부 취업지원부

“

**항상 도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4월 20일 바로 알기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왜 이날로 정해졌을까. 4월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이러한 의미에 맞춰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지정되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편집부

1991년,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

1981년 국제연합(UN)은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해’ 선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보건사회부가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지만, 당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였고,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후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을 설정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4월 20일인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그 일주일간을 장애인주간으로 정했다. 참고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은 매년 12월 3일이다.

서울올림픽 이후 장애인 인식변화 시작

1960~1970년대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관련된 법, 제도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았던 암흑기였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관계가 아닌 가엾고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에 그쳤던 시기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이 개최되면서부터다. 두 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장애인 종합 대책과 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으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됐다. 이로써 국민들은 장애를 동정하고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제도와 관련 법들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더불어 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되새김

한편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부르기도 한다. 과거 대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지만, 선진국들보다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이동할 수 있는 권리)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예시로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4만 명이다.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수(약 240만 명)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소에 일상에서 장애인을 마주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아직 여러 이유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장애인 이동권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부족하다. 현실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당장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을지라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향해 외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진일보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콘텐츠 발굴원 청년장애인 콘텐츠 업계에 진출하다

세계적으로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드라마·영화 외)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 관련 업계가 성황을 이루면서 차별화된 K-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며,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역시 많이 필요해졌다. 이에 공단에서는 ‘드라마 콘텐츠 발굴원’이라는 직무를 개발하여 청년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나섰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자.

글 편집부

* 2022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청년장애인 위한 콘텐츠산업 직무개발

최근 콘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장애인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2022년에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희’와 ‘별이’는 콘텐츠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회구성원으로 표현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이렇듯 콘텐츠 산업은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으로 최근 K-콘텐츠 전반의 시장성 역시 커지면서 청년장애인의 일자리 진출을 고려해볼 만한 직군이 됐다. 더욱이 콘텐츠산업의 주요 소비층은 2030세대로, 청년장애인 직무개발은 이들의 성향을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로써 공단에서 개발한 직군이 바로 ‘드라마 콘텐츠 발굴원’. 드라마 제작에 기초가 되는 콘텐츠를 탐색하고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직무이다. 영화, 웹툰, 웹소설의 스토리, 세계관, 인물 등 원천 콘텐츠를 수집·가공하고 문서화해 드라마 제작자가 필요로 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한

다.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가 웹툰 원작이며,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웹소설 원작이다. 또한, 영화 ‘홍반장’을 드라마화한 ‘갯마을 차차차’, 영화 ‘광해’를 드라마로 리메이크한 ‘왕이 된 남자’ 등이 있다. 이 같은 원작 스토리를 찾아내는 일이 드라마 콘텐츠 발굴원이 하는 일이며, 드라마 제작사에서 일하는 기획작가 업무와 유사하다.

콘텐츠제작사의 인식 개선 및 취업자 모집

그동안 공단에서는 최신 콘텐츠 동향에 관심이 많고 이용에 익숙한 청년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에 노력해왔다. 고학력 청년장애인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고용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먼저,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기에 적절한 국내 콘텐츠 제작사 인사담당자에게 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을 공유하고 고용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고용을 위한 공단 지원 등을 안내해 제작사 측의 막연한 두려움과 생소함을 줄였다. 다음 스텝은 지원자를 찾는 일이었다. 공단의 여러 지사의 협조를 받아 콘텐츠 제작사의 우대조건인 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구직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구인내용을 적극 안내했다. 이후 서류합격자 대상으로 대면면접이 진행되었으며, 합격한 지원자는 시청했던 드라마에 대한 본인의 감상평을 담아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영상으로 제출했다. 지원자는 채용에 대한 열정과 해당 분야에 관한 관심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한 감상평 작성 경험은 향후 콘텐츠 원천 스토리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역량인 분석력과 관련이 있기에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청년장애인의 직무 확장 가능성 UP

합격한 청년장애인은 자신의 관심분야로 취업함으로써 수행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인 근무를 희망했다. 원래의 근무형태인 재택에서 출근으로 변경하여 사업체 내부 분위기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그동안 방송·콘텐츠산업에서 대다수 장애인은 방송 모니터링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직무 개발로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 및 장애인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장애인이 발굴한 콘텐츠에서 장애를 현실적으로 담아내는지 아닌지를 장애 당사자로서 자문해줄 수 있어 직무 확장도 가능하다. 이 직군의 또 다른 이점으로는 중증장애인도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 분석력 등의 업무수행 역량만 갖추고 있다면, 업무강도를 조정하거나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리로 의사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아 심한 장애나 발화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도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비전공자인 구직자라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경험하고 감상평을 작성하여 콘텐츠 분석 역량을 높이는 훈련을 하면 좋다. 더불어, 국내뿐 아니라 국외 콘텐츠를 자주 접해야 하므로 외국어 능력이 있다면 더욱 유리한 조건이 된다.

“나, 동료지원가! 당신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김성현 사회복지사, 최지영 동료지원가, 이락 동료지원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 도입된 2019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이 사업을 위해
넘어지고 일어서길 반복하며 손발을 맞춰온 슈퍼바이저와 두 명의 동료지원가가 있다. 뒤돌아보면
성장이고, 앞을 내다보면 희망이라고 웃어 보이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방문해 들어봤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 이 기사는 공단 SNS 내꿈내일 기자단의 신지수 기자와 함께 취재했습니다.



서로의 의지로 달려온 5년

2011년에 설립된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활동지원사까지 3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 중이다. 2019년에 도입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도 5년째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면서 상담과 자조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에서도 호응이 좋은 편이다. 담당자 김성현 사회복지사 겸 슈퍼바이저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다른 신규 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아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을 함께해온 최지영 동료지원가와 이락 동료지원가에게 돌렸다. 물론 순조로울 때만 있었던 건 아니다. 최지영 동료지원가와 이락 동료지원가도 초반엔 막막함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던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김성현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되어 두 사람을 설득하고 이끌었다. 참여자의 자립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동료지원가들의 자립이 걸려 있는 사업이기도 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를 묻자 최지영 동료지원가는 활짝 웃으며 “동료지원 활동을 하니 사회와 강한 연결고리가 생겼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떳떳한 일원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라고 답했다. 이락 동료지원가는 “업무가 시작되면 생동감이 생겨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에요”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동료지원가는 오늘도 무력무력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운영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1:1 개별상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집단상담, 그리고 자조모임을 활용해서 참여자의 현재 상황과 취업 의사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락 동료지원가는 주로 자조모임을, 최지영 동료지원가는 자조모임과 1:1 개별상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처음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신인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소장님의 권유 덕분이었다. 센터 내에서도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가장 적극적인 두 사람은 동료지원가로서 손색이 없었다.

이락 동료지원가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안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와 상담을 진행할 때 어떤 적성을 살릴지, 어떤 곳으로 취업을 준비할지를 조언한다. 더불어 자조모임을 기획해 직접 참여자와 함께 현장을 나가는 일을 담당한다. 예를 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서 직접 취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구직신청서를 써보는 일이나 취업박람회에 가서 상담 받고 개개인의 역량과 연결해보는 일들이 주를 이룬다. 참여자 본인이 구직 신청에 문을 직접 두드릴 수 있도록 이락 동료지원가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도와주는 방식이다.

최지영 동료지원가는 작년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직장 내 비장애인의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수업 내용을 기획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강의는 1:1 개별 상담에서도 빛을 발한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참여자를 고취하고 다양한 사례를 담아 소개해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참여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 최지영 동료지원가



업무를 상의하고 있는 김성현 사회복지사와 이락 동료지원가

참여자들의 모범과 희망이자 가능성

한 명의 동료지원가는 평균 20~30명의 참여자를 담당한다. 5년 동안 많은 참여자들이 두 동료지원가를 거쳐 갔을 터. 이락 동료지원가는 그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참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꾸준히 상담 받으러 왔던 제 친구가 있었어요. 취업에 성공하고 다시 구직을 하길 반복했었는데 상담을 채 마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간 그 친구가 내내 마음에 남아요. 다음 생에는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했어요.”

반면 최지영 동료지원가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제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9세까지의 허들을 겨우 통과한 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현재 69세인 참여자가 본인은 나이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많이 위축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랑 상담 받으시고 취업 연계까지 이어져서 일 자리를 찾으셨어요. 나이가 많은 장애인인데도 일을 하니 젊어진 기분을 느낀다면서 저에게 감사 인사 연락도 주셨어요. 그럴 때 정말 뿌듯함을 느껴요.” 김성현 사회복지사는 두 동료지원가가 많은 참여자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면서 리더로서 5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룬 모습에 많이 감화되었다. 사회의 편견에 개의치 않고, 누구보다 단단한 리더십을 보여줬고, 당신도 일할 수 있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참여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모습에서 이 사업의 살아 있는 성과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에게 모범이자 희망이 되어준 두 동료지원가가 건강하기를, 그래서 함께 오래 일하며 서로의 성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지영 동료지원가와 이락 동료지원가, 그리고 그들과 5년간 손발을 맞춘 김성현 사회복지사는 새로운 참여자를 물색하기 위해 오늘도 홍보물을 만들고 다른 기관과 부지런히 조율 중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취업으로 자립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역량을 깨우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라는 진심이 전해진다. 이 세 사람이 뿌린 씨앗이 참여자들의 취업으로 끊임없이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미니 인터뷰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될래요."

이락 동료지원가

참여자 중에는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자조모임 때마다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설득하고 낙오하지 않도록 이끌어 결국 함께 끝을 맺게 돼요. 그럼 저도 흐뭇하고 함께 하셨던 참여자분들도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회와 참여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김성현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최지영 동료지원가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사회와 참여자를 잇는 마중물이 될게요."

최지영 동료지원가

제가 준비한 취업 사례들을 듣고 "나도 할 수 있겠네요?"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이 일을 정말 잘했다고 느껴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거나, 직장을 다시 잡으실 때 또 상담 차 연락을 주시거든요. 제가 정성을 쏟는 일이 그냥 흘러가지 않았구나, 이분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참여자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상담가이자 동료지원가가 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위해 발맞춰 나아갈게요."

김성현 사회복지사

처음 만났을 때의 두 분 표정보다 지금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는 걸 오늘 새삼 깨달았어요. 저희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 참여자분들도 처음 참여하셨을 때보다 밝아져서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업무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분이 되는 건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잖아요. 이 사업도 두 분의 동료지원가분들과 참여자분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시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웹와치, 장애인 근로자의 자부심이 되는 일터

웹와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전문기관으로서 시각장애인 특성화 직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해 왔다. 이곳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은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간다. 무엇보다 이들은 회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 긍지를 느끼고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길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웹와치는 웹 접근성 사용자 심사 직무에 다수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국가공인 웹 접근성 인증기관 ‘웹와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삶의 편의를 높이지만 누군가를 소외시키기도 한다. 고령자는 직원 대신 주문을 받는 키오스크가 낯설어 어려움을 겪고, 장애인은 회사 그룹웨어를 사용하지 못해 휴가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누구나 원활하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성이 중요한 이유다.

웹페이지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가장 먼저 마련된 영역이다. 2005년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국가표준으로 지정됐고, 2014년부터 지침을 준수하는 웹사이트에 WA(Web Accessibility)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웹와치는 2010년에 설립돼 2013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현재 전체 인증 건수의 약 50퍼센트를 차지하는 선두 기업이다.

이범재 웹와치 대표는 “웹 접근성 향상을 주도해 온 전사(前史)를 토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웹와치는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 선정되기 전부터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자체 인증마크를 부여했다. 웹에이전시가 접근성 높은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수행했다. 특히, 웹 접근성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잘 이해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자로서 웹 접근성을 심사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시각장애인인 김명섭 선임연구원이 동료 직원과 업무에 관해 상의하는 모습

분야의 전문성 갖추고 주도적 업무수행

웹 접근성 심사는 크게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로 나뉜다. 전문가 심사는 소스코드의 오류 여부를 포함해 기술적으로 웹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사용자 심사는 시각장애인(전맹, 저시력)과 뇌병변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가 웹페이지의 내용 파악하기, 게시물 남기기 등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 인증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웹와치는 2008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과 협력해 인증심사요원을 양성하고 고용해 왔다. 12명의 장애인 근로자 중 80퍼센트 이상의 인원이 일산직업능원의 시각장애인 특성화 분야인 ‘정보접근성’ 직종 훈련 수료자이다. 이들은 사용자 심사를 맡으며, 일부는 전문가 심사를 함께 수행한다.

웹와치는 사용자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전문가 심사 자격을 취득해 두 종류의 심사를 함께 맡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문가 심사는 비장애인이 맡고, 사용자 심사는 장애인이 맡는 식으로 나뉘는 구조를 탈피해 더욱 효율적으로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근로자가 심사를 통합적, 주도적으로 수행해 업무에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높은 임금과 직급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의미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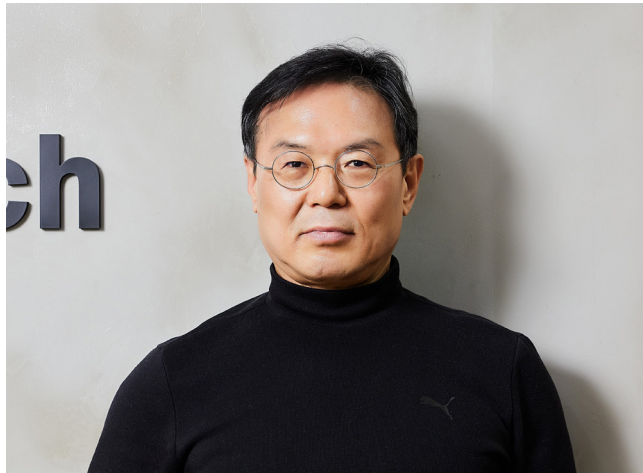


모니터 빔가림막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해 웹 접근성을 심사하는 오정훈 부장

장애인이라는 조건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곳

웹와치에서는 장애라는 조건이 약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직원들은 시각장애나 지체장애가 있어서 수행할 수 있는 일에 긍지와 책임감을 느낀다. 접근성연구소와 사업부의 리더를 겸하고 있는 오정훈 부장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직원들이 높은 목표 의식을 갖게 하는 존재다. 시각장애인이 회사 핵심 조직의 리더라는 사실은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차별 없이 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실제로 웹와치에 입사한 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방송통신대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등 자기계발을 위해 애쓰는 직원들이 많다.

접근성사업부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명섭 씨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이다. 시력을 잃기 전에 IT 업체에서 일했던 경력 등을 인정받아 웹와치로 이직했는데, 직원 개개인이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에 만족하고 있다. 김명섭 씨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성숙한 조직이다. 보수와 복지도 좋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스템 덕분에 장애인에게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웹와치는 웹 접근성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국가공인은 아니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 접근성 인증을 시도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이 보급되고 있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인증 제도화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확대되는 영역과 새로운 업무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도전 과제이자 기회다. 어렵고 힘들어도 기꺼이 도전하는 직원들과 함께 웹와치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꿈꾼다.



“장애인고용 양적 확대를 위한 모범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범재 웹와치 대표

“웹 접근성에 관한 국가공인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접근성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어 웹와치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낍니다. 직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경영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모범이 되고 싶습니다.”



“직원들 간 소통하는 문화가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오정훈 접근성사업부장 · 연구소장(시각장애)

웹와치가 좋은 이유는 ‘사람’입니다. 편 가르기 없이 협력하는 문화가 우리의 자랑이에요. 새로운 구성원을 뽑을 때도 모두와 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일터는 서로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만 강조할 일이 아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 성장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김명섭 접근성사업부 WA팀 선임연구원(시각장애)

웹 접근성 심사는 마치 보물찾기 같습니다. 웹사이트의 흠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더 친절하고 수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안내한다는 마음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지인들이 제가 심사한 웹사이트를 이용해보고 잘 만들었더라는 말을 해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웹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심사하는 사람도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정체되지 않고 발전하는 직무라 더 만족스럽습니다.

“3인 3향, 저희가 만든 향기 맡아보실래요?”

대구지역본부 판정평가팀 장원주, 이은택 전임평가사, 김재동 평가사

사람은 저마다 고유의 체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향수를 뿌려도 체취, 체온, 습관에 따라 향은 천차만별의 이미지로 재탄생한다. 각자 다른 체취를 가진 세 사람, 대구지역본부 판정평가팀의 김재동 평가사와 이은택 전임평가사, 장원주 전임평가사가 자신만의 향을 만들기 위해 향수 공방을 찾았다. 고유한 향이 어울릴지, 누구에게나 편안한 향이 어울릴지 알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향수 원액이 담긴 여러 유리병 앞에 세 사람이 앉았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향수를 만들기 위해 조향 공방을 찾은 장원주 전임평가사, 김재동 평가사, 이은택 전임평가사(왼쪽부터)

향이 남는 순서 탭, 미들, 베이스

김재동 평가사와 이은택 전임평가사는 경북지사에서부터 옆자리 동료였고, 장원주 전임평가사와 이은택 전임평가사는 같은 대학 동문 출신이다. 인연의 공통분모인 이은택 전임평가사를 두고 여러모로 편안하고 유쾌한 사람이라며 두 사람이 칭찬을 늘어놓는다. 이에 질세라 이은택 전임평가사도 두 사람을 장난스레 추켜세운다. “김재동 평가사는 묵직하니, 사람이 참 진중하고요. 장원주 전임평가사님은 처진 분위기도 금방 업 시켜주시는 분위기 메이커세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칭찬감옥’에 서로를 가둔 세 사람. 평소엔 하지 못했던 칭찬을 하려니 겹연쩍어 얼굴이 빨그레해지자 향수 만드는 작업에 급히 몰두해본다. 선생님이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면서 ‘나만의 향수를 찾는 여정’이 비로소 시작됐다. 각자 선호하는 향에 대해 들어보고, 향수에 대한 기본 설명이 이어졌다. 향수의 향은 탭 노트, 미들 노트, 베이스 노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인상을 결정하는 향은 탭, 다음에 남는 향은 미들, 잔향으로 은은하게 남는 향은 베이스다. 이 세 가지 노트에 맞는 단일향료를 탐구해보는 시간, 여러 가지 시향지가 세 사람의 코 밑을 훑고 지나간다.

“향이 너무 섞여서 구분이 안 되면, 유리병에 담긴 원두향을 맡으면 정화가 될 거예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손엔 시향지를, 한 손엔 커피 원두가 담긴 유리병을 들고 번갈아가며 냄새를 맡는 세 사람. 오늘 이들이 맡은 향료는 30가지 이상으로 다행히 모든 향료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라 머리 아픔을 호소하는 직원은 없었다. 오히려 더 다양한 시향지를 찾고, 추천받으면서 향에 대한 탐구를 이어나갔다.

세상에 같은 향, 같은 장애는 없다

선호하는 탭, 미들, 베이스 노트의 향을 종이에 적어 내려가는 와중에도 장원주 전임평가사는 업무 전화를 놓지 못한다. 세 사람이 속한 판정평가팀은 장애인 대상자들이 사업체에 잘 취업하고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직업적 능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적인 목표도 세우고 가장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평가사의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개별 장애인 근로자의 역량을 파악하고 사업체와의 연결을 매끄럽게 해나가는 게 주된 미션으로 꼽힌다.

“이제 선호하는 향들을 조합해 샘플 향수를 만들어볼 텐데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배합으로 만들어도 뿌리는 사람의 온도와 체취에 따라 천차만별로 발향됩니다. 저 또한 한 번도 같은 향의 향수가 완성된 적은 없으니까요.”

선생님의 안내를 들은 세 사람은 향을 제조하는 일이 판정평가를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장애에 따라, 장애인에 따라 역량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체 환경, 직무 분석은 언제나 신중히 하고, 장애인 근로자와 역량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늘도 관심의 안테나를 그들에게 다정히 드리우고 있다.

향수 넘버 ‘대명동’, ‘선한영향’, ‘Love yourself’

작은 플라스틱 통에 탑, 미들, 베이스 향료를 방울로 떨어뜨려 섞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은택 전임평가사가 “한 방울 잘못 넣었다가 향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면 어떡하죠?” 하며 걱정스러움을 표했다. 선생님은 “망치는 건 없어요. 다 각자의 향으로 탄생하는 거니까요” 하는 명언으로 세 사람이 보내는 감탄의 박수 세례를 받기도 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을까. 선호도에 맞게 방울로 배합한 플라스틱 통을 흔들어 섞는 세 사람. 시향지에 떨어뜨려 서로의 향을 돌아가면서 확인하는데 “이건 목욕탕 향 아납니까?”, “자기 거는 아무 향도 안 나는데?” 하며 잠시 웃음의 디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두 번째 배합 때는 인상을 결정짓는 향료를 더 넣고 나머지 향의 양을 줄여 넣으며 선명한 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은택 전임평가사는 월계수잎, 스파, 화이트 머스크가 들어간 ‘목직하면서 시원한 향’을, 장원주 전임평가사는 그린, 월계수잎, 튤립 등이 섞인 ‘꽃향 가득한 꽃시장의 향’을, 김재동 평가사는 샌달우드, 오스만투스, 튤립 등이 섞인 ‘달달한 들판의 향’을 완성했다.

오늘 완성한 향수는 어둡고 서늘한 곳에서 2주일간 숙성을 마친 후 사용해야 알싸한 알코올 향이 사라지고 안정화되면서 향이 더욱 풍부해진다는 선생님의 조언에 세 사람은 당장 내일 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마침 사무실 자리 배치도 나란히 앉는 터라 오늘 완성한 향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었다는 세 사람. 2주 뒤를 기약하자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다. 예쁜 유리병에 담긴 향수에 각자 이름을 부여하고 스티커까지 붙이자 시중에 판매하는 향수 못지않은 고급스러움이 전해진다.

올해의 목표를 묻자 장원주 전임평가사는 고민 없이 ‘즐겁게 사는 것’을 꼽으며 응원하는 야구팀의 시즌 경기를 최대한 많이 보고 싶다고 했다. 김재동 평가사는 취미인 피아노 연주를 계속해 영화 <라라랜드>의 OST인 ‘Mia & Sebastian’s Theme’를 완곡하는 것을 꼽았다. 이은택 전임평가사는 내년에 학교에 입학할 자녀와 함께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빠로서 충실한 한 해를 계획했다. 세 사람의 2023년은 저마다의 목표에 가닿으며 아마도 ‘Love Yourself’, ‘선한영향’, ‘대명동’의 향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나만의 향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동료의 향을 기억한다는 것만큼 오래 기억될 낭만적인 감각은 없을 테니 말이다. 더 나아가 장애인 근로자들에게도 편안하고 다정한 향으로 세 사람이 기억되기를 바라본다.

미니 인터뷰



"Love Yourself, Love Myself 하는 내가 될래요."

장원주 전임평가사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라는 곡을 좋아해서 향수에도 이름 붙여봤습니다. 피곤하고 우울할 때 제가 만든 이 향수를 뿌리면서 어두운 감정을 훌훌 털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도 햇살 같은 느낌, 포용력 넘치는 이미지로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기쁜 에너지와 향으로 기억되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오늘 딱, 제가 원하는 향을 손수 완성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한영향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되렵니다."

이은택 전임평가사

향수 이름만 보고 샀던 지난 향수들이 생각났던 하루였습니다. 고유의 향들을 맡아보고, 배합했을 때의 오묘한 향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향수에는 '선한영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선한영향력이 있는, 선한영'향'을 뿌린다는 게 재치 있고 의미 있어보여서 작명해봤습니다. 이 향을 뿌릴 때마다 그 다짐과 의미를 잊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 향수를 만들러 오고 싶어요.



"대명동의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김재동 평가사

저는 요즘 '좋은 어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 주는 우리 회사의 주소, '대명동'을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이 향수를 꼭 뿌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길 바라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 그 향 너무 좋은데요? 무슨 향이에요?'하고 물어보면 제가 손수 만든 향수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노동부 장관표창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취지에 대하여 사업주, 장애인근로자와 함께 ‘내일의 꿈을 잇다’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매년 4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고용 유공자 표창, 모범·우수사례 전파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뜻깊은 행사이다.

글 편집부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주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4월을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도 이 기간을 맞아 4월 13일에 서울을 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후원하는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991년을 시작으로 33회째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 행사는 대회사와 인사말, 주제 영상 및 수상자 소개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영상, 포상 전수식, 축하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고용촉진대회의 취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므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의 여러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고용의무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5세~64세 장애인구의 고용률은 50.3%, 경제활동비율(경활률)은 52.9%로, 15세~64세 전체인구의 고용률 69.2%, 경활률 71.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20년에서 22년'까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3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금융시장 및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 고용상황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기업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들

22. 6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20만 1,761명으로 전체 대비 80.3%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2.98%(의무고용률 3.1%)로 정부(3.74%) 및 공공기관(3.6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선도하는 해외와는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 대기업 집단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의 대기업은 장애인 적합 직무·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대기업이 말하는 장애인 미고용 사유로는 크게 적합 직무 부족(25.5%),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 부족(23.1%), 장애인 지원자 없음(19.1%)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에서는 대기업의 의무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강구하고 있다. 첫째,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을 위한 맞춤형 고용컨설팅으로 고용환경 분석·진단에서 적합 인력 매칭까지 이음매 없는(seamless) 서비스를 제공한다. 두 번째는 공단의 본부 사업부서, 소속기관과의 협업TF 구성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건 및 장애인 채용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장애인 고용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체육 직무 등 폭넓은 선택 영역의 제안을 통해, 기업의 고용 니즈를 충족하고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 경영실천 사례를 수집하고 제공(기업지원 플랫폼인 '고용컨설팅 자가진단 사이트' 활용, 현재 구축 중)함으로써 ESG 경영 실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영국, 장애인직업훈련 현장을 가다 WKC(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칼리지) 부설기관

영국은 장애인복지에 있어 앞선 국가로 유명하다. 장애인고용사업장(Remploy.ltd), 장애인사회적기업(Social Firms), 장애인 주거 공동체(Camphill community), 장애가족 휴양시설(Revitalise House),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 scheme) 등 그리니치대학교 사회과학스쿨 장애학 담당인 마이클 올리버(Michael Oliver) 교수의 사회모델은 모두 영국이 만든 장애인복지의 걸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직업훈련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 없고 쉽게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만난 ‘WKC(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칼리지)’ 부설, 중증장애인훈련센터(Alexandra center)를 소개하고자 한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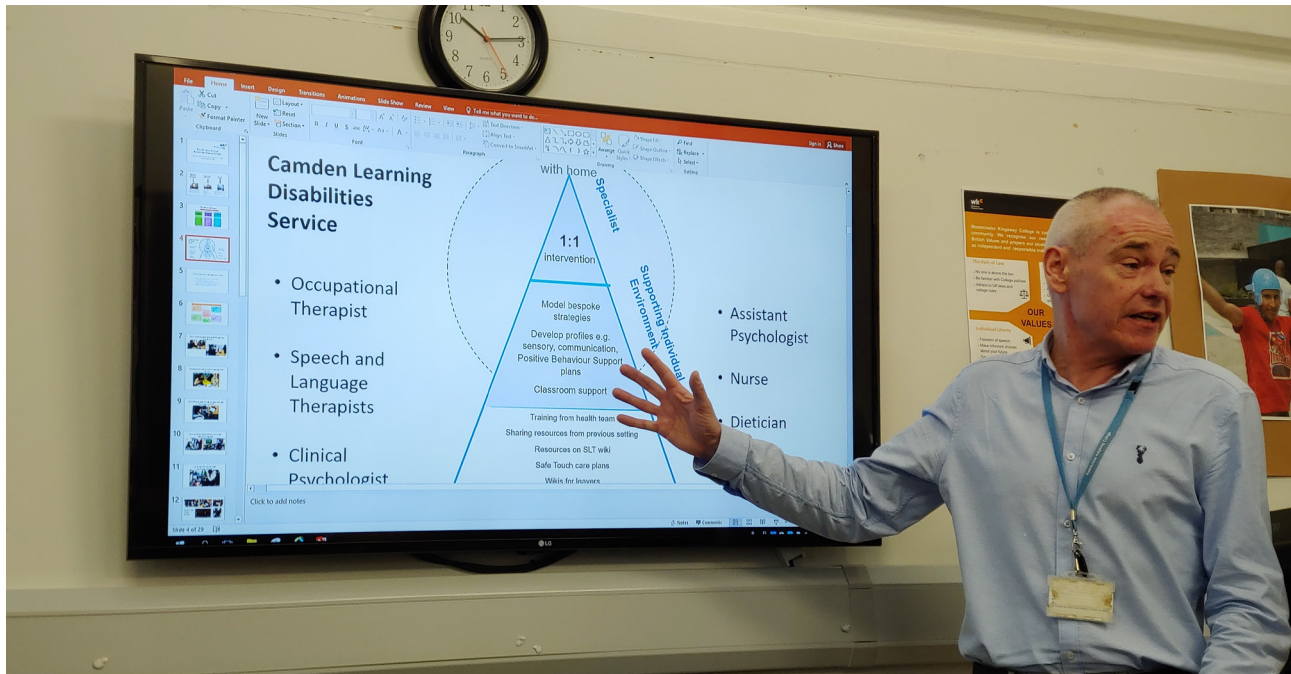
CCCG(Capital City College Group)¹⁾ 산하 ‘WKC’는 웬만한 미식가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세계적인 요리전문학교이다. 고든 램지, 제이미 올리버, 강레오 등 최고 요리사들이 이곳의 출신이다. 필자는 런던 시내 여러 전문대학을 총괄하는 CCCG의 ‘로이(Roy Oshaughnessy) 총장’과의 인연으로 명문 WKC를 방문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곳에 중증장애인직업훈련을 위한 ‘중증장애인훈련센터’가 있었는데 WKC 부설기관이었다. 로이 총장에게 그동안 영국 장애인직업훈련 기관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자, 로이 총장 역시도 그동안 한국 장애인 직업훈련에 관심이 많았는데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는 ‘장애인’ 중심, 그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검색해 생긴 웃기고도 슬픈 결과였다.

영국의 훈련생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 센터운영

이곳의 중증장애인훈련센터의 교육대상 자격은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Learning difficult persons)’, ‘도전적 행동을 하는 사람(Behavior that may challenge)’, ‘극심하지 않은 정도의 자폐(Autism spectrum disorder)’이다. 어디에도 장애인(Disabled)을 직접 호명하는 법이 없다. 기능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장애인’을 검색어로 삼아온 내게 이들 기관이 보일 리가 없었다. WKC 산하에는 중증장애인훈련센터 이외에도 두 개의 장애인직업훈련센터가 더 있다. ‘케네트 웨스트 스킬 센터(Kennett west skill center)’, ‘킹 크로스 센터(Kings cross center)’이다. 세 개의 센터는 장애가 있는 이용자 중 중증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심한 장애가 있는 훈련생은 중증장애인훈련센터, 다음으로 케네트 웨스트 스킬 센터, 심하지 않으면 킹 크로스 센터에서 훈련을 받는다.

장애 중증도에 따라 훈련하는 커리큘럼과 훈련교사, 사회복지사, 사회서비스 인력의 배치가 다르다. 당연히 훈련 목표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훈련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취업실적의 비율도 다르다. 킹 크로스 센터 85% 이상, 케네트 웨스트 스킬 센터 60%, 중증장애인훈련센터는 40%이다. 정확한 비율은 공과에 따르지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중증도에 따른 취업실적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은 11년 의무교육 학제를 초등 6년, 중등 5년으로 구분한다. 이후 학업(대학)과 직업(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 후기 중등과정(A-Level)에 입학한다. 직업 교육과 대입 준비 과정으로 2년제 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 12년제와는 다르다. 고등교육(FE)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훈련센터와 유사한 기관이라면 한국의 폴리텍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별도의 훈련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1) 런던에 소재한 영국 교육기관 중 후기중등과정(전문대학)인 고등교육(FE)의 학교로 런던시내 여러 곳에 캠퍼스가 소재하고 있고 학교명칭도 각각 다르다. 그 학교들의 총괄하고 있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폴리텍대학과 유사하다.



‘중증장애인훈련센터’에서 직업훈련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있다.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중증장애인훈련센터와 같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애로 인해 고등교육 기관 이용이 어렵다면 그것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몫이다. 학교는 중증장애인의 케어를 위해 지역사회 사회복지법인 또는 활동지원 단체와 협력해 사회서비스 인력을 지원한다. 중증장애인훈련센터는 매킨타이어(MacIntyre)라는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사회서비스(활동지원, 학업지원, 이동지원 등)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훈련 차이점

이와 같이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영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정규교육체계 안에서 누구나 동일하게 전문적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관련 부처를 달리하여 전문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장애인은 별도의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고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훈련센터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의 교육체계에서 전문적인 직업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위해 별도의 사회서비스 인력이 배치되어 직업훈련을 보조하고 있다. 중증도에 따라 한명의 장애인을 위해 적게는 1인, 많게는 4인까지 배정된다. 우리나라는 전문 직업 훈련을 위해 부처를 달리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직업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직업훈련기관(공단 능력개발원)에 활동지원사, 직무지도원 등 사회서비스 인력이 장애인 훈련생에게

개별적으로 배치되는 시스템은 아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을 위해 영국과 같이 사회서비스 인력을 배치한다면 중증장애인의 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많은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영국의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분해 대상화하는 것은 대표적인 장애인 차별 행위이다. 영국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직업훈련기관을 알고 싶다면, 먼저 직업훈련기관을 찾고, 그 기관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중 ‘특정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있고 원칙적으로 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는다. 이미 공단도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이 아닌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한다. 다만, 영국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학교에서 함께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능력개발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가는 방향은 같다. 영국의 장애인정책에 비해 늦게 출발한 우리로서는 이만하면 잘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마침 지난 3월 9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이 발표되었다. 장애인 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대폭 늘리고, 스스로 예산을 관리하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가 핵심이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는 지금,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휴먼서비스 혁명이 급속히 진행 중이다. 장애인직업훈련도 예외는 아니다.



좌측에서 세 번째 Capital City College Group 로이(Roy Oshaughnessy) 총장

챗GPT 열풍 속, 인공지능 윤리문제 AI는 결국 인간을 닮는다

우리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대인의 삶에서 인공지능은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삶 주변에 더욱 널리 쓰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과연 인공지능이 일으킬 잠재적인 문제들까지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다.

글 편집부



이미 도래한 미래

SF 소설가 아이작 아시모프는 소설 <아이, 로봇>에서 ‘로봇 3원칙’을 제시했다. 3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의 행동 양식을 제시한 이 원칙은 후에 많은 창작물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고심해야 할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다.

비록 SF 영화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로봇들이 도로 위를 활보하는 황황찬란한 미래가 도래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인공지능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다. 예컨대 자율주행 차량은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끊임없이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시리’, ‘구글어시스턴트’, ‘빅스비’ 등의 스마트 디지털 도우미는 전자제품과 결합해 사용

자가 내린 명령을 행동으로 구현한다. 특정 플랫폼에서 사용자의 취향을 가늠해 추천하는 알고리즘 역시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의 플랫폼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사용자가 이미 보고 좋아한 것을 분석하고, 다른 수천 개의 콘텐츠와 비교하고 대조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은 고객과 상호 소통하는 방법으로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의 개발사 오픈AI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약 1조 2,400억 원)를 투자한 사실은 인공지능을 향한 초거대기업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한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동까지 보여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AI 화가 ‘딥드림’이 그린 작품들이 걸렸고, AI 작곡가 ‘아야무스’가 쓴 곡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도 했다.

양날의 검, 인공지능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달과 비례해 인공지능 윤리(AI Ethics) 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한 자율주행차가 운전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자율주행차 사고가 날 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익숙하게 활용되고 있는 딥페이크 편집물은 가짜 이미지, 영상, 뉴스, 음성 등을 생성해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쪽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역시 차별주의적인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예컨대 백인 우월주의자와 여성·무슬림 혐오자들이 MS 인공지능 챗봇 ‘테이’에게 인종·성차별 발언을 학습시켜 챗봇이 부적절한 말을 쏟아낸 사례가 있다. 굳이 이런 챗봇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범죄 전과자의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재범률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테스트에서 인공지능은 흑인의 재범률이 백인에 비해 실제보다 훨씬 더 높다고 추론했다. 여성, 장애인, 유색인종 등 소수 집단의 데이터 수집이 부족한데서 오는 차별적인 통계적 추론이었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닮아간다.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장애인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룩소르 대학교 컴퓨터 공학부 연구원들은 심장박동을 읽어주는 센서를 통하여 아동의 감정 상태를 판단해 자폐 아동이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AI 사물 인터넷 기반 지능형 시스템 도입을 논문을 통해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에서 개발한 하프물범 새끼 모양 애완로봇 ‘파로’는 아동 자폐 당사자들의 정서 훈련교육에 기여하고 있다.

위의 여러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 기술은 양날의 검처럼 계속해서 명과 암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스로 학습하며 정교함을 더해가는 인공지능에 차별과 화합 중 무엇을 가르칠 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렸다.

도심에서 느끼는 색다른 자연, 서울식물원 봄철 미세먼지 피하는 온실 나들이

서울식물원은 전국 최초로 보타닉공원(botanic park)을 표방한 도시형 식물원이다. 보타닉공원은 식물원과 결합된 공원인데 싱가포르 보타닉가든이 유명하다. 내부 온실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푸르름을 느낄 수 있어 사계절 찾기 좋은 곳이고 수도권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도 편리하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 계절에 더 아름다운 서울식물원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보자.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서울식물원 내부

언제나 푸르른 온실

서울식물원에 도착하면 주제원에 먼저 방문할 수 있다. 주제원은 온실과 야외 주제정원으로 구성되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식물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온실 내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고 길도 걸림돌 없이 평탄해서 휠체어나 유아차도 쉽게 산책할 수 있다.

온실에는 다양한 기후환경에서 볼 수 있는 온대식물들로 채워져 있는데 열대관과 지중해관으로 나뉘어있다. 아직 여름이 오기 전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에 좋다. 층고가 높아 높이 자라는 열대지방 나무들도 볼 수 있어 마치 따뜻한 열대지방에 온 느낌을 주기도 한다. 또 천장 아래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해서 온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재미도 있다. 식물들 사이사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구간 수경 시설, 이탈리아 로마의 노단식 정원, 터키 타일로 모자이크를 장식한

분수 등 다양한 조형물들도 마련해두어 심심치 않게 관람이 가능하다. 특이하게 이곳에는 씨앗도서관이 있다. 씨앗도서관에서 책처럼 씨앗을 대출받아 재배한 후, 수확한 씨앗을 기간 및 수량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반려식물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온실 입구에 점자안내도와 음성해설안내도를 갖추고 있어 시각장애인 관람 시에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자생식물들이 반겨주는 주제정원

온실을 관람하고 외부로 나오면 주제정원이 이어진다. 주제정원은 바람의 정원, 추억의 정원, 초대의 정원, 정원사의 정원, 오늘의 정원, 사색의 정원, 치유의 정원, 숲 정원 등 8가지 주제로 꾸며져 있다. 참억새, 실새풀, 솔비나무, 윤노리나무, 돌배나무, 솔송나무, 귀룽나무, 야광나무 등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어 흥미롭다. 호수원이나 습지원까지 멀리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주제정원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제원이라 불리는 외부 주제정원과 내부 온실에 모두 장애인화장실이 있고 푸드코너와 카페도 있어 관람 중 잠시 쉬어가기도 좋다.

한적하게 자연을 즐기기 좋은 호수원과 습지원

주제원을 지나면 호수원과 습지원으로 이어진다. 호수원은 호수를 따라 수변 관찰 데크가 있어 습지식물을 관찰하기 좋다. 호수 계단가에서 UFO 모양의 온실을 조망하거나 습지식물과 텃새를 관찰할 수도 있는 휴식공간이자 생태 교육장으로 유익하다. 습지원은 서울식물원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물이 만드는 경이로운 생태경관을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다. 또한 자연천이 보존돼 생물종다양성이 실현되는 공간이라 환경적인 의미도 큰 곳이다. 한강나들목을 통해 식물원을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다. 연중무휴 개방되어 있어 해질녘 노을을 감상하기도 좋은 곳이다.

홈페이지

<http://botanicpark.seoul.g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휴일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 개인 : 성인 5,000원 / 청소년 3,000원 / 소인 2,000원

* 단체(30인 이상) : 성인 3,500원 / 청소년 2,100원 / 소인 1,400원

※ 대인 : 19~65세 미만, 청소년 : 13~18세 이하, 소인 : 6~12세 이하

※ 무료입장 : 6세 미만 65세 이상, 1~3급 장애인(보호자1인 포함),

4급~6급 장애인 본인, 국가유공자, 참전용사증소지자,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소지자

※ 할인 :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알쏭달쏭 직장생활

“단축근무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이란 모두에게 소중한 공간이면서도 온갖 고민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라서 직장에서 더 많은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한 고민, 고충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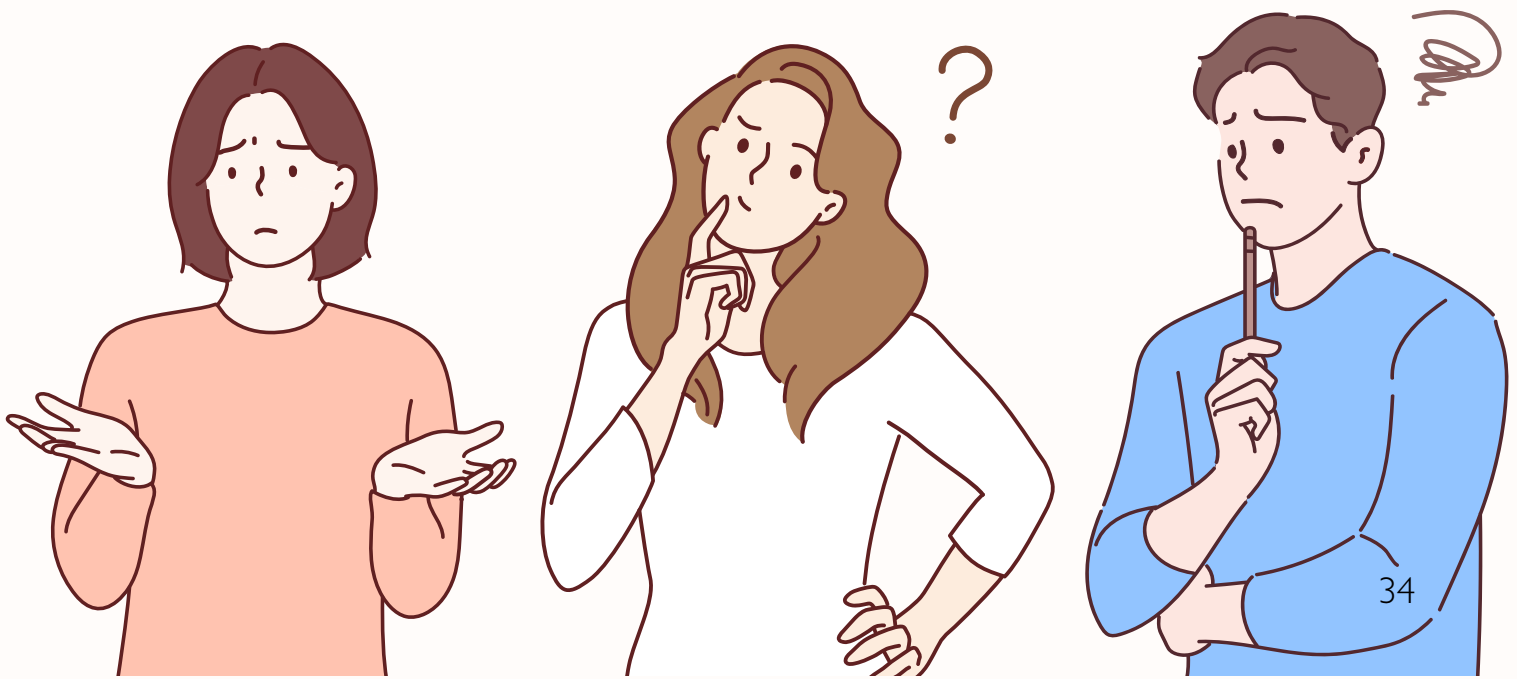
[장애인과 일터]가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함께 고민합니다.

* 4월호에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사례집> 수록 내용을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장애인과 일터]에 직장생활의 크고 작은 **고민과 고충**을 보내주세요. 내용이 소개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익명 참여’라고 적으시면 익명의 독자로 사연을 소개합니다. 단, 보내시는 내용 하단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
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실 곳 jangteo@kead.or.kr 독자 의견에 남기기



Q.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할 때, 하루 8시간 근무로 표기되어 동의했는데 예고 없이 다음 달부터 4시간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혼모로 10대 딸을 키우고 있고 신장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4시간 근무하면 실수령액이 10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단축근무 통보를 받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먼저 근로계약(서)을 맺은 상태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회사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실수령액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이 4시간 근로로 회사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시고 급여가 줄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측에 서류를 발급 요청하시고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저는 지체장애가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서 있으면 몸에 무리가 가서 채용 면접 시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 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난 후 직무배정을 받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때부터 동료들이 저에게만 공지사항을 공유하지 않거나 방진복 교환을 1년 동안 해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겪은 일을 면담신청서에 기록해 제출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어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

A.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먼저 상담자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담자님의 경우 이미 회사에 사정을 알렸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진정서를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기간 내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내며, 만약 회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로 연락하시어 전문상담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8개월째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악화돼 사측에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한 후 당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주째 접어들자 회사에서 병가는 3주만 가능하며 당장 출근하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근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1~2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대체인력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무단 결근으로 해고위기에 처해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요?

A. 건강 악화로 해고위기에 놓이셨다니, 심적으로 많이 불안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자님처럼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질환이라면 병가 추가신청이나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근로 금지, 근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휴직이 필요함을 사측 담당자에게 알리고, 회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 요건에 충족되는 점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티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트릿출신 #이제는김씨고양이

차가운 인천 길바닥에서 우리 집으로 들인 지 벌써 7년입니다. 낮을 많이 가려 틈만 나면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던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곁으로 먼저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애교를 부릴 정도로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달픈 인생에 힘이 되어주었던 수많은 만남 중 우리 아이와의 만남이 단연 최고의 ‘묘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윤 님



#운동 #풋살 #4월의실외운동추천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2시간씩 공을 차면서 날려 버리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며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겨우내 굳어버린 몸과 마음을 주말엔 산뜻한 봄바람을 맞으면서 풋살 한 게임으로 풀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임○영 과장, 공단 고용컨설팅부



#산책길 #봄꽃 #매화 #개나리

아침저녁으로 쌀쌀해도 봄은 봄인가 봅니다. 점심식사 후 산책길에 봄꽃을 봤습니다. 하얀 매화와 노란 개나리가 하루 피로를 싹 가시게 하더군요. 올해 처음 만난 봄꽃이 하도 반가워 오랫동안 감상했네요. 머지않아 봄꽃이 지천으로 피어날 텐데요, 그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꽃구경을 가고 싶네요.

강○철 님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신장장애인 편

그림 권도연

다들 외근가고 있는데,
혼자 언제 다 옮기지?

저기, 과장님! 워크숍 물품이 왔는데
같이 좀 옮겨주시겠어요?

미안해요, 현수 씨.
지금 무거운 걸 들기가 어려워서...

워야, 누군 쉬운가.

오해는 말고요. 제가 신장장애인인데 방금 투석하고
오느라 힘쓰기가 그래요. 아직 지혈이 덜 돼서 혈관이
터질 수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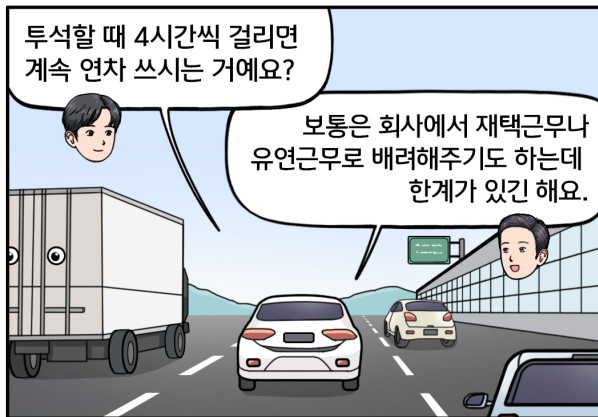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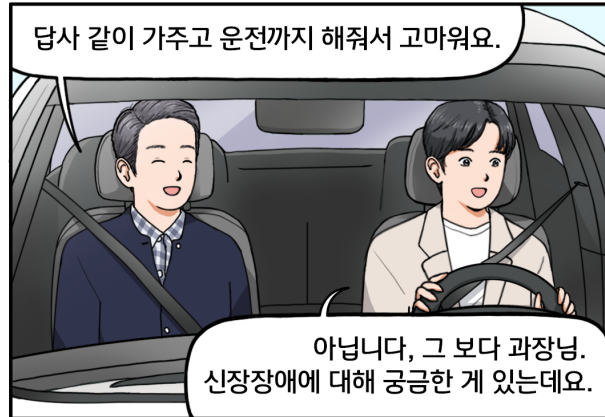
오른쪽 팔은 괜찮으니까 이 휴지 세트는 비품실에
가져다 놓을게요.

앗. 죄송합니다.

아뇨! 과장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 덩다 더워. 근데 일주일에 세 번이나 투석하면서
회사 다니는 직원이 있다더니 황과장님이셨구나.

투석은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으로 나뉩니다.
혈액투석은 반드시 도관을 팔에, 복막투석은 배에
삽입해야 투석을 할 수 있는데, 바늘이 꽤 두껍고 커서
환자가 심적, 체력적으로 힘이 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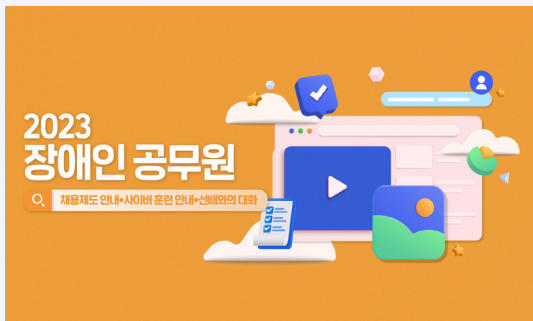
KEAD 뉴스

제10회 프랑스 메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대한민국 7연패 달성



지난 3월 25일, 프랑스 메스 아레나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폐회식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메달 1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여 통산 8번째 종합우승, 대회 7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이번 대회는 3월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간 전 세계 27개국 42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44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졌으며, 우리나라는 34개 직종에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였다. 우리 선수단은 기술위원 및 선수단장 등 지원인력의 헌신적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위기와 악재를 극복하며 종합우승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총 10개 직종 중 8개의 금메달(컴퓨터수리,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등)을 획득하며 개최국인 프랑스 그 밖에 중국, 일본 등 강력한 경쟁국들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목공예’ 직종은 4회 대회부터 9회 대회까지 연이어 금메달을 따내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임을 증명하였다.

인사혁신처·국방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 이하 공단)은 지난 3월 17일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정보 영상을 상시 제공한다. 온라인 영상은 인사혁신처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제도와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 등의 안내와 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공공부문 임용대비 전용과정 정보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중증장애인 경채시험을 통해 입직한 선배 공무원들이 출현하여 공무원 합격 노하우를 소개한다. 영상은 관계부처(인사혁신처·국방부)와 협업으로 공동 제작되었으며, 각 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 시기를 고려하여 시차를 두고 제공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정보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관심이 있는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공단 유튜브(youtube.com/user/hahaKEAD)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23. 3. 17.(금) 게시, 국방부: '23. 5. 8.(월) 게시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공동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로 제2회를 맞는 공모전은 ▲고용, 노동, 안전보건, 장애인고용 분야 데이터 활용 확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창업 기업 발굴, 육성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아이디어 기획 분야로만 진행됐으나 올해는 공공데이터를 실제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까지 응모 분야를 확대·운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 예비 창업자, 기업, 학계 등 국민 누구나 개인 혹은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3월 20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 공모전 대표 홈페이지(www.2023datacontest.co.kr)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7.26~7.28.), 2차 발표심사(8.17.)를 통해 분야별 6점씩 총 12점을 선정할 계획이며, 총상금은 1,650만 원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